

2017 국가직 7급 한국사 기출 총평 및 문제 해설

아모리그잼 학원 이명호 교수

<총평>

어떤 시험이든 합격의 문은 좁습니다.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마땅치 않은’ 시스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직 7급 시험은 모두가 다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어떤 증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끝까지 힘을 내어 도전한 수험생들을 일일이 만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7년 8월 26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특별히 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사료를 해석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이고, 답을 찾는 것도 수월치 않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헛갈리면 반드시 고르게 될 ‘확실하게 파놓은 함정’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과 각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봅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 (총 20문항)>

구분	시대 상제	문제 번호 (가책형)	출제된 내용	자료 제시
고대	초기 국가	8번	부여	○
	삼국 시대	11번	무령왕릉	○
	가 야	1번	가야	○
	통일신라	7번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	×
	발 해	5번	발해	×
중세	고 려	13번	이자겸	○
근세	조선 전기	6번	16세기의 조선의 경제활동	○
	조선 전기	10번	16~17세기 그림	×
	조선 후기	16번	양명학(정제두)	○
	조선 후기	14번	장길산의 난	○
	조선 후기	19번	조선 후기 역사서의 ‘정통론’	×
근대	개항·개화기	3번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개항·개화기	18번	동학농민운동	○
	개항·개화기	9번	갑오개혁	○
	일제강점기	4번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1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순서 문제)	×
	일제강점기	17번	1920년대 해외 무장 투쟁(순서 문제)	×
현대	-	20번	6.25 전쟁(순서 문제)	×
종합	고려, 조선	2번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	×
	-	15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특징>

1. 전근대사(조선시대까지)의 문제와 근현대사의 문제가 출제된 비중은 일반적인 다른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되어, 여전히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 문제가 1문제로 그쳤는데, 이것은 최근의 다른 시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2. 장길산, 이자겸, 정제두 등 인물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장길산은 2014년 지방직 9급에서 '임꺽정의 난' 문제의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 2013년 국가직 7급에서는 '숙종 대'의 사건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장길산'만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길산 문제와 이자겸 문제는 모두 그 인물과 관련된 핵심어 즉 '양덕, 10년, 이영창', '국공, 인수절' 등을 알아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자료'에서 언급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3.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3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 사건의 순서, 1920년대 해외 무장 투쟁의 순서 및 6·25 전쟁 각 사건의 순서를 물었습니다. 각 사건들은 인과 관계로 묶여 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중요한 사건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어서, 결국 문제를 풀 땐 '연도'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출제되었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들을 모아서, 연도들을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출제된 '궁예' 문제도 궁예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연도와 왕대(王代)를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4. 특정 시대의 큰 흐름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어떤 '관원'을 예로 들어 조선 중기 각 분야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16~17세기에 활동한 사람과 화가들을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학계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18세기~19세기의 '역사서에 나타난 정통론'은 이 주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유계, 허목, 이익 등도 합하여 정통론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초기 국가 문제, 발해 문제, 조미수호통상조약 문제, 갑오개혁 문제, 유네스코 등재 유산 문제 등 기존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형태와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연구하시되,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그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출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출 문제의 사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연구하여야 어려운 시험에서 특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어려운 시험에 응시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 국가직 7급(가책형)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 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1. 정답 ③

해설 : 가야의 건국 신화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고려 문종 때 금관지주사가 찬술한 「가락국기」에 김해 가락국 수로왕(首露王) 신화가 전하고, 신라 말기 최치원이 찬술한 「석이정전」에 고려 대가야국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신화가 전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는 「석이정전」의 가야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 나라’는 ‘대가야’를 말한다.

- ①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고려의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된 이 시기의 가야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 한다.
- ② 대가야의 중심 지역은 ‘고령’이다. 대가야의 유적으로는 고령 지산동 유적, 고령 지산동 유적이 있는데, 이 중 고령 지산동은 고분군은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2012년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서는 ‘이 나라(대가야)’의 ‘왕릉급 고분이 밀집된 고분군의 이름’을 물었고, 답은 역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었다.
- ④ 대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 시기에도 있었으나, 후기 가야 연맹에 들어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으므로, 대가야의 ‘전성기’란 후기 가야 연맹이 시작된 5세기 후반 이후로 보면 되겠다. 대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된 이후 소백산맥 서쪽까지 진출하여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③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에 가락의 허 황후(許皇后)가 아유타국(阿踰陀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올 때에 붉은 돛과 진홍색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수로왕이 궁궐 서쪽에 휘장으로 된 임시 궁궐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황후가 도착하자 맞이하여 함께 수레를 타고 궁궐에 들어가서 황후에 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아유타국’이란 지금의 인도를 말한다.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는 수로왕과 결혼한 허황후이므로, 이것은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2. 정답 ①

해설 : ㄱ과 ㄷ이 옳다.

ㄱ. 고려의 과거는 제술업(제술과), 명경업(명경과), 잡업(잡과)으로 나뉜다. 제술업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는 시험이었다. 이 중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ㄷ. 조선 사회에서 잡과 출신자는 문과 출신자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일단 잡과 출신 중인은 법적으로 ‘한품거관(限品去官)’이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한품거관은 일정한 관품에 오르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기술직 중인의 경우 정3품 당하관에서 실직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

ㄴ. 「고려사」에 보면 국자감시를 이렇게 표현한다. “곧 진사시(進士試)이다. 덕종이 처음 설치하였고, 부(賦) 및 육운시(六韻詩)·십운시(十韻詩)로 시험하였다. 그 후 혹 성균시(成均試)라 칭하기도 하였다.”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입학시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으나, 국자감시를 본고시인 예부시(禮部試)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고시’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예비고시인 국자감시는 중앙의 국자감 학생이나 지방의 향공(鄉貢) 등이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곧장 이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또 다른 한 단계의 예비고시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어떻게 보더라도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ㄹ. 고려 시대에 음서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자들은 대부분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그 중 절반은 재상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기에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음서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고위 관직 진출은 어려웠다. 16세기 이후에는 문음자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진출한 9품 참봉직에 그대로 머물렀다.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현 등을 통해 미국과 ㉠을 (를) 체결하였다.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②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3. 정답 ④

해설 :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의 결과 미국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를 신미양요(1871)라 한다. ‘개항 이후’ 즉 강화도조약(1876)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신헌(申櫳, 전권대관)과 김홍집(金弘集, 전권부관)을 대표단으로 하고, 미국측은 슈펠트(薛斐爾)를 대표로 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1882). 이 조약의 제1관은 이렇다.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통지하면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 준다.” 이를 거중 조정이라 한다.

① 조영수호통상조약은 ‘개항’ 후인 1882년에 체결(수정 조인 기준)되었으나, 미국과의 조약을 묻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양곡의 무제한 수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된 조약은 조일무역규칙(1876)이다.

③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청’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민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보 기>

-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4. 정답 ②

해설 : ‘한민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된 곳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이다. ‘이곳’에서는 한·일 병합 직전에 유인석, 이범윤, 이상설, 홍범도 등을 중심으로 13도 의군(1910)이 조직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해체되었고, 성명회(1910), 권업회 등의 단체가 이어 조직되었다. 권업회(1911)는 한민 학교(1911)를 세우고, 정통령을 이상설, 부통령을 이동휘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1914)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는 임시 정부 성격의 단체인 대통령을 손병희로 하는 대한국민의회(1919)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ㄱ과 ㄷ이 옳다.

ㄴ. 양기탁, 이회영, 이상룡 등 신민회 간부들은 서간도 삼원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경학사(1911)의 주된 활동은 농업 개발과 군사 교육이었으며, 그 부설기관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1911)를 설립하였다. 모두가 ‘서간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1912)가 조직된 지역은 ‘상하이’이다.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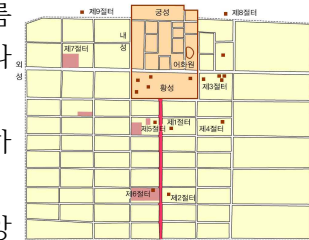
5. 정답 ④

해설 : 발해가 중앙의 주요 관서에 두 명 이상의 장관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① 발해는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특히 문왕은 자신을 ‘황상(皇上)’이라고 표현하여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불교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면서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 하여 ‘대왕(大王)’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② 발해는 모피, 우황, 구리, 말, 사향, 녹용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특히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③ 상경(上京)은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외성 안의 북쪽 중앙에 황성(皇城, 내성)을 쌓고, 그 남문에서 외성 남문까지 직선으로 낸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여러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조방’이란 주작대로 좌우로 ‘바둑판처럼’ 나뉘어진 구역을 말한다.



주작대로와 조방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68년 :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冲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6. 정답 ③

해설 : ‘이 관원’은 16세기의 인물이다. 이 시기의 수취제도는 세종대 이후 실시된 ‘공법’이므로, 수조율(조세율)이 ‘10분의 1’이 아니다. ‘10분의 1’은 과전법 아래에서의 수취제도에서 책정하였던 조세율이고, ‘공법’의 수조율은 풍흉에 따라 1결당 4~20두로 하였다.

① 녹봉은 관료들에게 지급되던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녹(祿)과 특수한 경우 지급되는

봉(俸)을 합친 말이다. 녹봉의 지급은 광흥창(廣興倉)에서 이루어졌는데, 광흥창은 녹봉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재정 전담 기구였다. 녹봉으로는 쌀, 콩 등의 곡식, 마포(麻布)나 명주 같은 직물, 그리고 저화 등이었다.

② 1556년(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을 지급하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이전에도 지주전호제가 있었으나,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고 토지 사유화의 관념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관원은 ‘이형’에게 산 밭을 ‘5:5로 분배하는’ 지주전호제인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농에게 경작시킬 수 있었다.

④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란 관장(官匠)을 말한다. 관장들은 관청에 소속되어 물품을 만들었지만, 부역기간 중에도 책임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었고, 부역기간이 끝나면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조선 후기에 공장안이 폐지되어 관영수공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관장이 개인적으로 생산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양길이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7. 정답 ②

해설 : 궁예가 도적의 우두머리인 기훤(箕萱)에게 의탁한 때는 진성왕 5년인 891년이며, 복원의 도적 양길(梁吉)에게 의탁한 때는 진성왕 6년인 892년이다. 그러나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꾼 때는 911년인데, 이때는 이미 왕이 바뀌어 효공왕(897~912)이 재위하고 있었다. 진성왕의 재위 기간은 887년부터 897년까지이다.

-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때는 진성왕 6년인 892년이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때는 진성왕 3년인 889년이다.
- ④ 양길이가 부하인 ‘궁예’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한 때는 진성왕 8년인 894년이다. 양길은 부하였던 ‘궁예’에게 오히려 습격을 당해 세력이 약화되었다. 양길의 세력은 진성왕대 말기에 이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효공왕대에 이르러서는 궁예에 의해 완전히 평정되었다.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략)…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중략)…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중략)…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괭(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 ㄱ.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곶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8. 정답 ①

해설 :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 국가는 부여이다. 부여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여야 했다. 정책(성과 목적)을 만들 때는 둥근 형태로 만들었는데, 모두 중국의 감옥과 비슷하였다. 사람이 죽었을 때가 여름이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얼음을 사용하였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경우에는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장례의 예를 정중하게 하였는데(여기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 '후장(厚葬)'을 문제에서는 장사를 후하게 지냈다고 표현했다. '후장'이라는 표현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조와 '고구려'조에 모두 등장한다.) 부여에서는 외곽은 사용하였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

ㄱ. '부여'에서는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ㄴ. '부여'에서는 국왕의 장례에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은 이렇다. '한(漢) 나라 때에는 부여왕의 장례에 옥갑을 사용하였으므로, 언제나 [옥갑을] 현토군에 미리 갖다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장사지냈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던 국가는 '고구려'이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곶 속에 넣어 매장한 국가는 '옥저'이다.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9. 정답 ②

해설 : 군국기무처(1894)를 중심으로 추진된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이며, '이 내각'이란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제1차 내각(김홍집 내각)을 말한다. 제1차 갑오개혁에 따라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으로 일원화되었다.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자는 주장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의 내용이다.

③ 궁내부 내장원이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였던 시기는 대한제국 때이다.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자는 주장은 독립협회의 6조의 내용이다.

10. 사람의 문화를 반영한 16~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정의 풍죽도
- ② 심사정의 초충도
- ③ 어몽룡의 월매도
-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10. 정답 ②

해설 : 16~17세기에 활동한 황집중(1533~?), 이정(1554~1626), 어몽룡(1566~?)은 각각 포도 그림, 대나무 그림, 매화 그림으로 유명하다. 이들을 삼절(三絶)이라고 한다.

② 심사정(1707~1769)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산수화, 인물화 등을 주로 그렸으며, 그 외에 화훼초충과 영모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였다. 그곳에는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11. 정답 ②

해설 :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한 ‘벽돌 무덤’으로, 관이 금송(金松)으로 되어 있고,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은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 안에서는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501~523)과 왕비의 지석(誌石)이 발견되었다. 이 2매의 지석은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땅의 신에게 묘소로 쓸 땅을 사들인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돌에 새겨 넣은 매지권(買地券)으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함께 출토되었다.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총칭으로 이동하였다.
-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㉕.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neg \rightarrow \text{㉔} \rightarrow \text{㉕} \rightarrow \text{㉔}$
 ② $\text{㉔} \rightarrow \neg \rightarrow \text{㉔} \rightarrow \text{㉕}$
 ③ $\text{㉔} \rightarrow \text{㉕} \rightarrow \neg \rightarrow \text{㉔}$
 ④ $\text{㉔} \rightarrow \text{㉕} \rightarrow \text{㉔} \rightarrow \neg$

12. 정답 ①

해설 : ㉔.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1940년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면서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바꾸고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위 ‘충칭 임시정부’의 사건들이다.

㉕. 1941년에, 임시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㉔.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㉕. 1944년에,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최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13. 정답 ②

해설 : ‘이자겸은 자기 부(府)에 속한 주부(注簿) 소세청(蘇世淸)을 개인적으로 송(宋)나라로 보내 표문과 토산물을 바치면서 지군국사(知軍國事)라고 자칭하였다. 이자겸의 권세와 총애가 나날이 높아져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온갖 계략으로 헐뜯고 비난하였다. 왕의 아우 대방공(帶方公) 왕보(王輔)는 경산부(京山府)로 추방하였고 평장사 한안인(?~1122)을 섬으로 귀양 보냈다 죽였다. 또 최흥재, 문공미, 이영, 정극영 등 50여 명을 귀양 보냈다. 자신의 친족을 요직에 배치하고 매관매직하여 자기의 세력을 심었다. 스스로 국공(國公)이 되어 자기의 왕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자기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부르고 전국에서 온 축하문을 전(箋)이라 불렀다.’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이자겸과 관련된 「고려사」의 기록이다.

② 이자겸의 집안은 불교계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자겸은 아들인 수좌(首座) 의장(義莊)을 현화사(玄化寺)에 포진시키는 등 당시 경제·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사원세력과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① 정중부의 난(무신정변)이 경인년(庚寅年, 1170)에 일어났고, 김보당의 난(계사의 난)은 계사년(癸巳年, 1173)에 일어났는데, 이 두 시기를 합하여 경계(庚癸)의 난이라고 한다. 이자겸 사후의 일이다.

③ 만주 일대를 장악한 여진(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고려에서는 ‘사대-자주’의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결국 이자겸이 사대를 수락하였다(1126).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한 인물은 ‘묘청’이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격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14. 정답 ②

해설 : 장길산은 숙종대 산적 두목으로 유명했던 실존 인물이다. 그는 광대 출신으로 원래 활동 무대는 황해도였다. 그 무리가 많아 조정에서 큰 걱정거리로 여기다가, 결국 신엽(申燁)을 황해도 감사로 삼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조정의 체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장길산은 이후 행방을 감춰 버렸다. 10여 년간이나 민중의 신망을 받으며 투쟁하였던 장길산 무장 세력과 연대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승려 ‘여환’의 세력이었다. 제시된 자료의 ‘이영창’은 ‘여환’ 세력의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심문 기록에는 ‘여환’이 연대하려고 했던 ‘장길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숙종실록」에 보면, ‘도독의 괴수 장길산이 양덕(陽德) 땅에 숨어 있으므로, 포도청(捕盜廳)에서 장교(將校)를 보내어 덮쳐서 잡도록 했었는데 관군(官軍)이 놓쳐 버렸었다. 대신이 그 고을 현감(縣監)을 죄주어 다른 고을들을 경계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앞부분은 바로 ‘양덕에서 장길산을 잡지 못한 사건’(숙종 18년, 1692년)을 언급하고 있다.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고 ‘양덕’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놓쳤고, ‘이영창’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무리들’은 ‘장길산의 무리들’이다.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15. 정답 ③

해설 : 비변사등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은 2017년 현재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 왕조 의궤,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등재 순서로 나열함)’ 등 총 13개이다.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16. 정답 ①

해설 :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종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 제시된 자료는 정제두의 「하곡집」에 수록된 내용으로,

-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한 인물은 윤휴(1617~1680), 박세당(1629~1703) 등이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송시열(1607~1689)이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준 대표적인 인물은 이수광(1563~1628)이다.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ㄹ→ㄷ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ㄱ→ㄴ

17. 정답 ①

해설 :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1920).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1921).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1925).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1930).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 기>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정답 ④

해설 :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한 때는 1894년 6월이다.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일본의 경복궁 점령’, ‘제1차 갑오개혁’, ‘청일전쟁 발발’ 이후의 사실이란 바로 동학 제2차 봉기를 말한다. 2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은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집결한 후,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주력부대를 잃게 되었다(1894. 11). 이후 보은 전투에서 패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므로 ㄷ과 ㄹ이 옳다.

ㄱ, ㄴ 황토현 전투(1894. 4)와 전주 화약(1894. 5)은 모두 동학의 1차 봉기 때 발생한 사건

들이다.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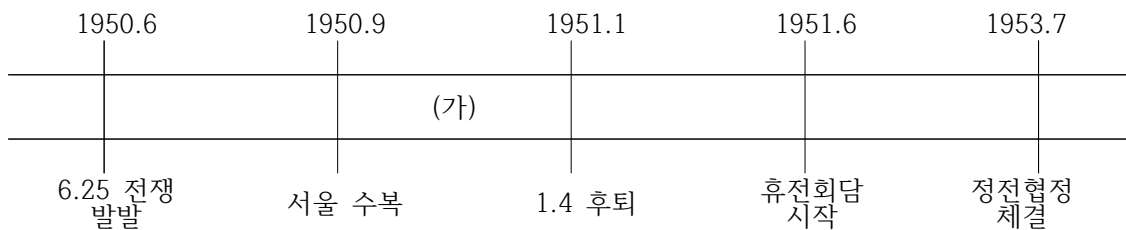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 - 기자 - 마한 -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 - 마한 -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 - 마한 - 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19. 정답 ③

해설 : 정통론의 발전 및 화이관의 변화 등은 우리 역사의 체계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국사의 체계화 역시 정통론적인 것과 비정통론적인 것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정통론적인 것은 다시 강목체적 입장의 것과 비강목체적 입장의 것으로 나뉘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통론 가운데 강목체 사학자는 홍여하·유계·임상덕·안정복 등이며 정통론 가운데 비강목체 사학자는 홍만종·이익 등이다. 비강목체 입장을 가진 18세기 초엽 홍만종은 단군 - 기자 - 마한 - 삼국무통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으로 체계화하였다. '단군을 정통에 놓은 것'은 삼교회통의 비강목체적 입장의 반영이며 삼국무통은 현실중시의 입장이다.

- ① 18세기 초엽 임상덕은 『동사회강』에서 삼국무통 - 통일신라 - 통일고려로 체계화하였으며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국무통과 마한 부정은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 ② 18세기 중엽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단군 - 기자 - 마한 - 삼국무통 - 통일신라 - 고려(통일 이후)로 체계화하였다. 삼국무통은 역시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강목체 사학의 국사의 체계화는 17세기에 비해 18세기는 현실 중시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 ④ 17세기 중엽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기자 - 마한 - 신라를 정통으로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마한을 정통으로 한 것은 명분론의 강조이다.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20. 정답 ①

해설 : 1950년 9월 15일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상륙 작전에 성공하였고, 이후 서울을 다시 수복하였다(1950. 9).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바뀌어 북한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난령에 따라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을 1·4 후퇴라 한다(1951. 1). 이 두 사건 사이, 즉 1950년 9월과 1951년 1월 사이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제3보병사단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였다(1950. 10. 1). 2) 중국이 1백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참전하였다(1950. 10. 25). 3) 퇴로가 차단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0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 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철수하였다(흥남 철수, 1950. 12. 15).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1953. 6).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1951. 4).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1950. 1).